

불교 호스피스 시설·인력 확충 '시급'

'존엄사법' 제정, 불교계 영향은?

일명 '존엄사법' (연명의료법)이 19년 만에 국회서 통과됨에 따라, 올바른 호스피스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호스피스 활동을 펼쳐 온 불교계도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인적자원 확보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지난 1월 8일 국회는 본회의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8년 1월부터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는 조건적으로 심폐소생술·항암제 투여·혈액투석 등과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불교계는 '연명의료법' 통과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능행)는 "앞으로 불교적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타 종교 의료시설에서도 보장되길 바란다"면서도 "환자의 임종관정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한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임종 관정에 대해 환자와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이관되지 않기 위해 관정을 지연·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는 보건복지부 주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추진 TF회의', 2015년 3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입법을 위한 국민본부 발기인대회' 등에 참석하는 한편, 각종 토론회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관련 불교호스피스협회에서 '영적돌봄'이 활동 중인 다경 스님은 "환자가 존엄사를 희망하고, 가족들이 부응할 때 '자리'와 '이타'의 큰 바위가 굴러간다"면서 "생명의 주인은 '나'란 것을 자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의 선택과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는 2018년 '연명의료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호스피스 시설 확충 △독자 프로그램 개발 △인적 자원 확보 등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우선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및 시설들이 확보돼야 한다.

2018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호스피스·완화치료 활성 '기대'

동국대 의료원 중심 시설 늘려야

호스피스協, 복지부 법인 변경 추진

일본 한 병원에선 '호스피스 법당'을 별도로 두고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동국대 병원 등 불교계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별도 병동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교호스피스협회는 인적·물적 자원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많은 병원에서 영적돌봄가 스님을 요청하지만 현재로서는 활동 능력을 갖춘 스님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단은 종립대학 등에 재학 중인 스님들에 대해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지도법사 정범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행정적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정범 스님은 "병원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하기 위해선 교육 수료증 등 활동 증명서가 요구된다. 조계종복지재단서 교육 수료증 발급 등 운영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호스피스 활동 증명서 발급 주체기관을 명확히 하고, 분산된 교육 기관을 조계종복지재단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재 불교계 호스피스관련 기관 및 의료시설에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불교호스피스협회는 전국 7개 지부 중

심 '컨트론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해 현재 울산시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호스피스교육, 활동가 양성교육 등 실시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위한 연구·홍보 및 신도교육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유일한 종립대학병원 동국대 의료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안책을 모색 중이다.

태석기 동국대 의료원장은 "몇몇 병원에 호스피스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기반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완화의료는 환자들 편의를 위해 일반 병동과 별도로 운영돼야 하는데 공간 확보도 어렵다"면서 "사회적 요청이 확산된다면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에 개설된 '완화의학클리닉'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제도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후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서 결정 추진위, 자료공개·사이트 개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문화재청 제3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결과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됐다"고 1월 8일 밝혔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2013년 12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2014년 8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된 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추진위는 총북 보에 법주사, 총남 공주 마곡사, 전남 순천 선암사, 전남 해남 대흥사, 경북 안동 봉정사, 경북 영주 부석사, 경남 양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을 등재대상으로 선정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2002년부터 한 국가당 연간 1개씩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후보 선정은 전통사찰이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다는 반증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7월 추진상황 평가를 거쳐 2017년 등재신청서 제출,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현재 기초연구와 완료된 상태로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에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및 완전성 등을 보강해 등재신청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구급 30일 '한국의 전통산사' 홈페이지(www.koreansansa.net)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가치에 대한 설명과 7개 등재대상 사찰 소개, 자연환경, 역사, 가람배치, 문화재, 인물, 설화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노덕현 기자

"사회 아픔 함께 하는 '희망의 길벗' 될 것"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13일 신년기자회견

사회문제 해결방안 제시 천명
노동위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보육시설 및 특수출가 등 도입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공동체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계층간 격차가 점점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반성과 참회를 고백하며, 청년세대와 미래세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조계종이 새해를 맞아 출산율 감소, 청년실업, 초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처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보육시설 확충' '은퇴 특수출가 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불교계의 사회기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희망의 길벗이 되겠습니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진행될 조계종 2016총무기조는 크게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인 종단 혁신으로 구성됐다.

이날 자승 스님은 먼저 사회 현안 문제 대처를 위해 종단 내 구성한 노동위와 화쟁위를 확대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기존 노동위는 사회노동위로 확대되며 환경, 노동, 인권, 종교평화 영역과 지역 단위 화쟁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문적인 문제도 풀어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중점과제를 밝혔다.

을 위해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 확충, 해외임양과 낙태 문제에 대한 법외 교육, 은퇴자를 위한 특수출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사찰 내 햇빛집열판 설치를 통한 에너지 활용, 산사와 지역마을의 생태에너지 공

동체 구축 등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진행되던 34대 집행부의 핵심과제인 '건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의 진행, 승려복지제도의 확대, 교구분사 주지인사고과제 도입, 사찰운영위 제도 의무화 및 전산회계프로그램 보급 등도 공개됐다.

자승 스님은 "우리사회 전체가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며 "화쟁적 관점으로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갈등을 치유하는 불교가 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해설 2면>

글=노덕현 기자 · 사진=윤호섭 기자

목각 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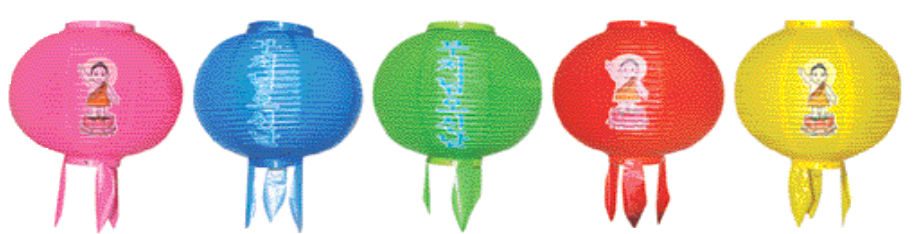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 만월동 |

| 정품 LED 전구 |



| 공단동 |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천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